3월31일까지 시립미술관서 '원더러스트'전 여는 벨기에 작가들

"다른 삶 갈망하는 도전 정신 광주와 닮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3월31일까지 열리는 '원더러스트' 전의 큐레이터와 참여작가들이 마르셀 브로타에스의 작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엘 투엘링스, 한드 마리아 드 울프, 호노레도. /최현배기자 choi@

계사년 새해 광주를 찾은 벨기에 출신의 작가와 큐레이터는 '광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벨기에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끊임 없는 도전정신은 돋보였다. 한국과 벨기에의 문화는 많이 다르지만 그들의 작품은 광주에 어울렸다.

17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원더러스트-또 다른 언덕 너머로 가는 끊임없는 여정' 전 개막행사를 치른 벨기에의 큐레이터 한스 마리아 드 울프와 작가 호노레도, 조엘 투엘링스를 만났다.

지난해 6월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한 차례 열렸던 이번 전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3층 6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자유분방함과 유머로 시민들 위안 받았으면 하정웅 청년작가전 보며 지역작가들 미래 봐"

큐레이터 한스는 "광주 사람들에게 이번 전시를 '선물'하고 싶다"며 "독일어인 '원더러스트(Wanderlust)'는 이번 전시의 주제이자 전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키워드"라고 입을 열었다.

'걷다, 산책하다. 나를 내 던지다'와 '강한 욕구'라는 의미가 결합돼 탄생한 원더러스트는 자연스럽게 '자유'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1980년 5월 민주화를 갈망하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벨기에 작가들의 '정신세계'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상처받은 광주시민들에게 '힐링'이라는 선물을 준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근 최진실과 최진영, 조성민으로 이어지는 자살소식을 듣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봤다"며 "벨기에 작가들의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유머러스한 모습, 도전 정신에서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립미술관 1층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빛 2012'을 둘러보면서 광주지역 젊은 작가들의 밝은 미래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교한 설치 작품을 통해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호노레도는 "이번 전시의 포스터이기도 한 '진주 목걸이'는 관념화된 횡단보도를 물 위에 띄움으로써 관념과 규범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규범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호노레도는 이번 전시에서 횡단보도를 물 위에 띄우는 대신 미술관 입구에서 하늘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 지난해 6월 아트선재센터에서 설치했을 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실제 작품을 건너다가 3일 만에 작품이 망가지는 웃지못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자유분방함은 지난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이중주'라는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당시 프란시스 알리스와 악기를 절반으로 나눈 뒤, 만날 장소를 정하지 않고 서로를 찾아 돌아다니는 과정을 작품화했다.

조엘 투엘링스는 "작품을 일반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며 "작품을 보는 관람객도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읽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돌'과 '새'로 재즈 연주자가 재즈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하듯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본질적인 것들의 컬렉션'은 폴 세잔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생트 빅트와르산'에서 가져온 돌부터 인도, 중국 등 각국의 돌이 그의 내면을 자연스레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브뤼셀 자유대학교와 벨기에 연방정부 등에서 지원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마르셀 뒤샹 '여행가방 속 상자'

현대미술 거장 뒤샹을 만나다

20세기 서양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마르셀 뒤샹을 비롯한 벨기에 작가 5명의 작품이 전시되는 '원더러스트' 전은 작품의 외형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살피면서 접근해야 한다.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내면의 세계에 접근하다 보면 그들의 작품세계로 여행을 하게 된다.

입구를 들어서면 참여 작가들이 여행을 하면서 수집했던 엽서와 책 등 다양한 오브제들이 전시돼 있다.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타이틀을 한눈에 보여준다.

발걸음을 옮기면 시각예술계의 거장 마르셀 브로타에스의 '겨울 정원'이 새로운 세계로 관람객을 인도한다. 토종 야자수와 정원 의자, 백과사전의 도판들로 꾸며지고 영화와 음악이 곁들여져 있다.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한다.

마르셀 뒤샹의 '여행가방 속 상자'는 꼭 눈여겨 봐야할 작품이다. 그가 생전에 작업했던 '샘'을 비롯한 작품 수십여점이 미니어처로 작은 여행가방 속에 담겨 그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었던 파나마렌코의 작품세계도 눈에 들어온다. '왕풍뎅이'를 보면서 그가 예술과 기술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알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영희 이매방 김청만

신영희·김청만 '판소리' 인정 예고

이매방 '명예보유자'…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정비

문화재청은 17일 진도 출신 소리꾼 신영희(71)씨와 목포 출신 고수 김청만(66)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또 목포 출신 무용가 이매방(86)씨 등 5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보유자로 예고된 신씨와 김씨는 각각 '춘향가'와 고법 전수조교로 다양한 공연활동과 활발한 제자 양성을 통해 전승의 맥을 잇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인정 예고는 최종 심의 단계에서 일반인들의 이의 제기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자로 인정한다.

신씨 등은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오는 3월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보유자로 인정된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예능 보유자인 이매방씨는 명예예능보유자로 인정예고 됐다. 명예예능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활동이 어려울 경우 후진 양성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중요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로 김영재(66) 씨와 이보현(60) 씨를 각각 인정했으며 궁중채화(宮中綵花)를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보유자로는 황을순(78) 씨를 인정했다. 또 명예예능보유자로는 북청사자놀음 보유자 이근화선(89), 강령탈춤 보유자 김실자(85), 가사 보유자 이양교(85), 태평무 보유자 강선영(88)씨를 인정예고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페라 안부러운 '남도 창극'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도립국악단 '민요넘어창극'

남도의 전통민요와 춤, 판소리, 창극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마당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19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에 전남도립국악단을 초청 '민요 넘어 창극'을 주제로 남도민요, 살풀이, 설장고, 창극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대나무 향기를 품은 대금과 오동나무의 통울림이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만나는 죽금과 오동현의 협연을 시작으로 무당이 굿을 행한 뒤 추는 즉흥무인 살풀이 춤이 이어진다.

남도의 흥과 한이 어우러진 남도민요, 전라도 우도농악 가락 중 장구놀이만을 특화시킨 설장고 놀이도 선보인다.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